



아드보카트호

중간점수 62.9



■ 한국축구연구 설문조사 ‘수비보강 시급’ 68%

2006독일월드컵축구 개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축구 지도자들은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간 성적표에 62.9점을 매겼다.

17일 한국축구연구소(이사장 허승표)에 따르면 일선 축구지도자 304명을 대상으로 축구대표팀의 중간점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0점 38명, 60점 144명, 70점 89명, 80점 26명, 90점 3명 등 평균 62.9점의 점수를 줬다.

또 대표팀에서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포지션으로는 응답자의 68.4%인 208명이 수비를 꼽았다.

‘아드보카트호’의 월드컵 G조 예상 성적에 대해선 104명이 1승1무1패라고 답했으며 83명이 1승2패를 꼽아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2승1무라고 대답한 지도자들은 20명에 그쳤다.

대표팀의 현실적인 월드컵 목표에 대해 189명(62.2%)이 16강이라고 대답했고,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답변도 33명이나 됐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2%인 189명이 박주영(FC서울)을 지목했다.

“이동국 대안 우성용 추천”

■ 이영무 축구협 기술위원장

“아드보카트 감독이 돌아오면 우성용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영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무릎 부상으로 독일월드컵축구 출전 꿈을 접은 이동국(27·포항)의 대안으로 K-리그 득점 선두 우성용(33·성남·사진)을 떠올렸다.

우성용은 이번 시즌 7골을 터뜨려 득점 순위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17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우성용이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틱 아드보카트 감독이 돌아오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데 그 때 말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주영(21·FC서울), 설기현(27·울버햄프턴)을 이동국 대신 센터 포워드로 기용할 수 있는냐는 물음에는 “설기현은 파워와 스크린 능력이 좋지만 줄곧 윙 포워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영아! 마음 편히 가져라”

축구전문가들 ‘골침묵’ 차에 격려

“박주영의 슬럼프는 박주영 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워낙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겁니다”

최근 5경기 연속 골 침묵에 빠져 있는 프로축구 FC서울의 ‘천재 골잡이’ 박주영(21·사진)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조급해 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며 힘을 실어줬다.

박주영은 지난달 25일 제주 유니타드와 원정경기에서 2골을 몰아친 이후 슬럼프에 빠져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슈팅 자체가 부족해 이후 5경기에서 고작 9개를 시도하는데 그쳤다.

골 침묵이 길어지다 보니 지난 1~2월

대표팀 해외 전지훈련 이후 불거졌던 ‘부진 논란’ 등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 이동국(포항)이 무릎부상으로 독일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해진 이후 박주영은 이동국을 대신할 최전방 공격수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주영의 부진은 팀 전체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FC서울 자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며 박주영 부진 논란을 일축했다.

박성화 전 청소년대표팀 감독은 “주영이의 플레이가 부진하다기 보다는 팀 전체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또 큰 부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치열한 공중볼 다툼 17일 영국 블랙번 이우드 파크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블랙번의 폴 디코프(왼쪽)와 리버풀의 제이미 캐러거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AP=연합뉴스

격투기 왕중왕 가린다

‘일음왕제’ 표도르 에벨리아넨코와 동생 알렉산데르 등 러시아 무술인 삼보 출신 유명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제1회 삼보월드컵(가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대한삼보연맹은(회장 문종근) “9월~10월 세계 40여개국 삼보 챔피언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국제삼보연맹(FIAS)과 합의했다고”고 17일 밝혔다.

‘삼보월드컵’ 국내 개최기로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 선수들을 주축으로 세계선수권대회가 매년 한 차례씩 열리긴 하지만 챔피언 경력을 지닌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너먼트방식으로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보연맹은 최근 서울에서 폐막된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에 참석한 다비드 루드만 FIAS 회장과 ‘삼보월드컵’을 국내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보연맹은 일본 종합격투기 프라이드 대회에서 명성을 쌓은 표도르 형제와 세르게이 하리토노프 등 삼보 출신 유명 격투기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다는 계획이다.

호주 배틀리 첫 우승

PGA 버라이즌헤리티지 최종

한때 ‘골프신동’으로 불렸던 애런 배틀리(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입문 3년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배틀리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아일랜드 허버타운 골프링크스(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버라이즌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0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날 이븐파 71타로 제자리 걸음을 걸은 짐 퓨릭(미국·270타)을 1타차로 꺾은 배틀리는 2003년 PGA 투어에 데뷔한 이후 3년만에 우승컵을 차지해 상금 95만4천달러와 2008년까지 2년간 투어카드를 확보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겨우겨우 특가 빅도 크나우팅 0821-372-9981-2

www.kjdsa.com

★공주도도탕 ★삼계탕 ★양방(흑염소) ★보신탕

해나로통신

가정통신요금 100% 할인

0821-449-9000

PC형 형제 업그레이드 이젠 알뜰

0821-1544-2285

파워컴

가정통신 (0821) 1544-2285